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무상 안전점검 누적 3000명 지원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서 운영

2025. 6. 11.



- 2023년부터 배달파트너 누적 3000명 혜택받아 지원 확대해 하반기 2000명 추가 지원 목표
-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전국 13개 지역서 상반기 무상 안전점검 행사 진행
- 정비 전문가의 체계적인 정비·소모품 무상 교체 "배달파트너 실질적 안전주행 지원에 집중"

2025. 06. 11.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주행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CES는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000여명의 배달파트너에게 무상 점검 혜택을 제공해 왔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배달파트너의 실질적인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000여명의 배달파트너가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혜택을 받았다. CES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000명 규모의 추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권을 비롯해 강원 원주, 충북 청주, 대구, 울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쿠팡이츠 배달 수행 이력이 있는 배달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무상 안전점검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정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점검과 함께 진행된다. 점검 항목으로는 △제동장치 △타이어 △소음/배기가스 △등화장치 △조향장치 등을 살펴본다. 무상 교체 소모품은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필터 △미션오일 등으로 전문가의 상태 진단을 거쳐 교체 필요 시 무상 지원한다. 점검 지원으로 이륜차 주요 고장 원인을 사전에 진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배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쿠팡이츠서비스와 같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인 노력이 의미 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배달파트너는 “비용이 부담되는 정밀 점검과 소모품까지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물론 평소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를 꼼꼼히 점검 받을 수 있어安心이 됐고 실용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배달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배달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안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 등 다각도의 방안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S는 이 외에도 전국 지역 지자체와 협력한 안전 캠페인, 안전용품 제공, 배달파트너 안전 교육 지원 등을 연계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